

친일과 과거청산

—이완용의 제국주의 협력논리를 중심으로

이나미

들어가면서

국회에서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시금 친일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 주제를 다룬 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토론자는 일제가 고종에게 공작의 작위를 주려고 했을 때 이완용이 결사반대하여 고종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친일파 이완용만 알려져 있지 이완용의 이러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과연 이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친일파 이완용이 아닌 다른 그의 면모가 밝혀질까. 이는 이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 전체에 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완용이 '구제' 된다면 다른 친일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 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완용은 가장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친일파이다. 따라서 '이완용 재평가론' 뒤에 숨어 있는 이러한 함의를 잘 간파하고 그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이완용이 고종에게 충성하였다는 것은 그가 보수주의자라는 것과 고종과 친분이 깊었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군주

제·봉건제에 근본적인 비판의식이 없는 보수주의자로서 과거 습관대로 왕을 모셨다. 부친 제사도 열심히 지내는 효자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태도로 일본 천황에게도 충성을 바쳤다. 그는 갑신정변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개화지식인들과의 사이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¹ 개화파들이 일본과 서구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그 국가들이 문명국가였기 때문이었지만 이완용이 일본 편에 섰던 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패권을 장악해 갔기 때문이었다. 즉 항상 강한 세력 편에 서서 안정과 실리를 지향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편에 서서 실리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이다.

또한 그가 고종 개인에게 충성했음지는 모르지만 국권을 대표하는 왕으로서의 고종에게 충성한 것은 아니었다.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일이 발각된 후 감히 아무도 나서서 하지 못한 고종의 양위를 이완용은 앞장서서 추진했다. 그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심지어 칼로 고종을 위협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그는 적극적으로 고종을 몰아내는 데 공헌했다. 이는 당시 어떤 친일파도 나서서 하지 못한 일이었다.

고종 양위뿐 아니라 일제가 조선을 합병해 간 과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완용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본에 조선을 합병할 것을 먼저 제의하였다. 이 제의를 받은 당시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는 '그물을 치기도 전에 물고기가 뛰어들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합병으로 가게 된 전 과정, 즉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등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는 대신들과 고종을 설득해 가며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이완용뿐 아니라 나약한 고종과 무능한 대신들에게도 합병의 큰 책임이

1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그가 결국 개화인사들에게 좋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윤치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75.

있지만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것과 용의주도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나라를 넘긴 것 사이에는 질적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완용의 매국행위를 이렇듯 일제의 조선합병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당시 일제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축소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 한일합병은 일제의 잔인한 의병운동 진압과 황실에 대한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의병들은 구한말부터 합병 전까지 전국에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합병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에 의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합병에 반대하는 민중의 유혈투쟁이 이어졌다. 우리 역사를 보건대,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엘리트들이 망치면 민중이 수습하는 역사를 가졌다.

이완용 연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일파 옹호론 때문이다. 그러한 책들의 제목에 달린 ‘변명’과 ‘변호’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조심스럽지만 과감한 친일파 옹호론을 펴고 있다.² 저서뿐 아니라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겨난 상황이다. 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생겼는가.

우리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친일파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이는 친일파가 학계를 비롯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친일 연구를 쉽게 할 수 없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친일파 1세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친일파 옹호론은 이러한 본격적인 친일파 비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제국주의 옹호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신우익의 출현이 목격되고 있다. 독일 역시 1980년대 말부터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나치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고 하버마스와

2 예를 들면 북거일의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들린아침, 2003), 김완섭의 『친일파를 위한 변명』(춘추사, 2002) 등이 있다. 김완섭의 저서는 같은 해에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같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³ 그런데 우리 학계의 경우 역사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친일 옹호론에 대한 대응이 없다. 물론 친일 옹호 논리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 수 있으나 친일 또는 제국주의 협력 논리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무지막지한 자본의 힘과 지지로 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의 흐름

이완용에 대한 글은 매우 적다. 이는 그의 악명이 가져다 주는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소수의 글들이나마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공통적인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네 시기, 네 주제로 나뉜다. 우선 해방 직후부터 60년대까지로, 이 시기의 이완용에 대한 글들은 주로 그의 죄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회복의 「이완용일당매국죄악상」(《삼천리》, 1957. 4), 이현종의 「한일합방 전야와 매국주구들 : 寺內統監 그늘 속의 독버섯 이완용 · 이용구 · 송병준의 죄상」(《사상계》, 1964. 4)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중순부터 1990년대 초까지이다. 이는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그에 관한 글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글들 역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친일뿐 아니라 친미, 친러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행선의 「친미 · 친로파로서의 이완용 연구(1858-1904)」(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박영석의 「‘이완용’ 국제감각 지닌 천부의 기회주의자」(《광장》, 1986. 3), 이이화의 「이완용의 곡예 : 친미, 친로에서 친일로」(《역사비평》, 1992. 6), 박치문의 「이완용의 대외인식 변화와 친일논리 연구」(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논문, 1994)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의 글들은 과거의 그의 친일 행위에

3 구승희, 『논쟁 나치즘의 역사화?』, 온누리, 1993, 19쪽.

대해 죄상을 밝히는 것을 넘어, 보다 종합적으로 그의 친일 행위뿐 아니라 친미, 친러 등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 번째로는 1999년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중심, 1999)과 이에 대한 서평들(한철호,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반성의 역사」, 《황해문화》 12호, 1999; 《동아시아비평》 4호, 2000)을 들 수 있다. 윤덕한의 책은 이완용을 재평가하는 저서로, 1927년 이완용의 생질이자 비서였던 김명수가 펴낸 『일당기사』 이후 이완용에 대한 저서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완용에 대해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다는 점 또한 이완용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한일합병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려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는 한철호의 서평에 의해 책의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철호가 지적한 바대로 저자의 집필의도가 결국 저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⁴ 저자의 집필 의도는 그가 왜 독립협회 활동과 같은 애국적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독립신문》이 그토록 찬양한 이완용이 왜 친일로 전향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저서의 내용을 통해 달성되지 않았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그 이유 중 하나는 저자가 독립협회를 애국적 단체로 미리 규정하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여겨진다. 독립협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따라서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이 이완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완용이 속했던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재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간행된 친일파를 옹호하는 책들과 인터넷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완섭의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 카페 “더러운 코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책들과 사이트는 이완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를 포함하여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한다.

4 한철호,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반성의 역사」, 《동아시아비평》 4호, 2000, 68~70쪽.

다음 절에서 이완용의 어떤 면이 재평가 또는 옹호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논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완용 재평가 논리가 갖는 문제

이완용을 재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첫째, 그가 한때 애국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그는 독립협회의 초대 위원장 및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독립신문》에는 그를 칭찬하는 글이 자주 실렸다는 사실이 거론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협회를 이미 애국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독립협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존재한다. 독립협회에는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궁억—윤치호 계열과 안경수—박영효 계열이 있는데 전자는 유교사상을 토대로 서구 근대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자 했고 후자는 주로 일본유학생 출신들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⁵ 특히 안경수는 독립협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그는 일본 유학 시절부터 꾸준히 조선의 군권(君權)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의 국권을 약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독립협회가 후기에는 러시아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활발한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 역시 일본이 개입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완용이 그 현판을 썼다는 독립문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이 청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건립된 것으로, 《독립신문》은 이를 가리켜 일본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이후 친일단체인 일진회에 독립협회 회원의 다수가 참여했다는 사실에서도 독립협회의 친일적 성격은 드러난다. 따라서 이완용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과 그가 이후 친일파가 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독립

5 주진오, 『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1995, 144~150쪽.

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나 다름없었으므로, 독립협회의 위원장이며 이후에 회장을 맡은 이완용에 대해 좋은 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완용이 손병희로부터 3·1운동의 대표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거절하였지만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그가 나름대로 애국적인 인물임이 주장되고 있다. 우선 그가 이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번지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모두의 기대 이상으로 이 운동이 크게 번지자 이완용은 몇 차례에 걸쳐 강한 어조의 경고문을 신문을 통해 내보냈다. 그 내용이 민심을 너무 자극하여 일본이 오히려 신문에 내지 못하게 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3·1운동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심지어 고등계 형사 신철도 마찬가지였다. 신철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부락을 받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죄목으로 나중에 체포, 투옥되고 결국 자살한다.⁶ 이러한 사실은 3·1운동이 고등계 형사마저도 막지 않을 정도로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족대표자들이 이완용에게 참여를 건의한 것에 대해 논하면, 우선 참가를 요청받은 친일인사가 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박영효, 김윤식, 윤치호 역시 참여를 요청받았다. 이는 3·1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이들 민족대표들은 3월 1일 당시 유혈충돌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고다 공원에 나가지 않았으며 대신 태화관(옛 이완용 별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읽었다.⁸

그가 재평가되는 두 번째 논리는 그가 조선의 개혁을 위해 애썼으며 그것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과의 합병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근대화는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6 《대한매일신보》, 1919. 5. 22; 신복룡, 『한국사 새로 보기』, 풀빛, 2001.

7 윤덕한, 『이완용 평전』, 중심, 1999, 331쪽; 신복룡, 위의 책.

8 신복룡, 앞의 책.

는 이완용뿐 아니라 일제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대표적이고 전형적 논리로,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일제 시대 당시 조선 시대보다 더 잘살았다는 논리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이어지는 이 논리는 각종 통계 자료를 들어 일제 시대 당시 한국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치는 진실을 보여 주기보다 곡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통계 분석은 그것에 내재된 정치적 의미, 계급적 성격, 식민지 자본주의의 질적 성격과 발전 전망, 삶의 질의 문제를 보여 주지 않는다.⁹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 시기 동안 조선인의 인구가 늘었다는 사실을 들어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인들이 더 잘살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¹⁰ 그러나 인구 증가로 잘사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자살율이 늘어나는 서구 선진국은 식민지 조선보다도 못사는 것이 된다. 또한 전후 시기와 같이 힘든 재건기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역시 인구와 잘사는 것은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일제가 조선을 단순히 수탈만 했다고 하는 기존 관점은 비판받을 수 있다. 현재 역사학계에는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모두 비판되면서 제국주의 단계의 식민지에는 내용과 질이 다른 자본주의가 이식되었고 이를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징은 규모는 성장했지만 질적 측면에서 대일 편중의 심화, 수출입 시장의 협소화 등 왜곡된 구조를 갖는 것이다.¹¹

또한 일제는 자신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선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일본 자본이 조선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하는 체제하에서 식민지 산업구조에 조응하는 소수의 조선인 자본가만이 성장할

9 송규진, 『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4쪽.

10 북거일, 앞의 책, 12~13쪽.

11 정태현, 「일제하 경제사 인식의 정립을 위한 시론」, 《아세아 연구》 12호, 1994. (송규진, 앞의 책, 5쪽에서 재인용)

수 있었다.¹²

세 번째로 왜 그에게만 미국의 죄를 묻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당시 고종과 대신들도 우유부단하고 무능하여 결국 한일합병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완용 때문에 합병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위와 행위에 대해서는 질적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무위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한일합병의 경우도 이러한 치명적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적극적인 행위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단순한 친일과 적극적인 합병 성사는 정도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아무리 친일파라 하더라도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교권과 입법·사법·행정권의 양도, 고종 양위 등과 같은 문제는 쉽게 찬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박영효와 같은 친일인사도 고종의 양위에 반대해 회의 불참 등 비록 소극적 행위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완용에 맞섰다. 이완용은 심지어 고종을 양위시킬 때 반대자들을 경무청에 감금하기도 하였다.¹³ 총독부의 다음의 글은 합병에 있어 이완용의 적극적 역할을 보여 준다.

정이위대훈위후작正二位大勳位侯爵 이완용 씨는 근대에 있어서 동양의 인물이었다. 원래부터 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신념을 관철시키고, 반도의 상하를 기사회생시켜 나아가서 동아 금일의 융창隆昌과 문명을 일으켜 세운 대사업의 감행자였다. 즉 군의백출群議百出의 사이에 날카롭게 천하의 대국大局을 선각하여 민생을 천재天載 후까지 복지를 베푼 그 당당한 태도는 감히 평장한 것이었다.¹⁴

12 강만길 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송규진, 앞의 책, 5쪽에서 재인용)

13 김명수, 『일당기사』, 1927, 532~542쪽. (박치문, 「이완용의 대외인식 변화와 친일논리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논문, 1994, 29쪽에서 재인용)

그가 조선을 일본에 넘기기 전에 조선은 이미 다 망해 가고 있었다는 논리도 있는데, 조선을 실질적으로 망해 가게 한 장본인 역시 이완용이다. 조선의 주권을 차례차례 잃게 한 을사조약, 정미7조약은 그가 대신들과 고종을 설득해 가며 주도하였다.¹⁵ 천관우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면서 “조선왕조는 사실상 그 생명을 잃었다”고 했으며 이후의 내정감독권을 넘겨 주는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 합방조약은 다만 예정된 코스에 불과했다고 본다.¹⁶ 윤덕한은 강동진의 연구성과, 고종실록, 조약에 참가한 대신의 회고문, 조약 체결 후의 상소문, 당시 신문보도 등을 참고해 당시 을사보호조약 체결의 상황을 재구성하였는데, 그 과정을 보면 고종과 다른 대신들은 외교권의 형식이라도 남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조약체결을 미루려고 하는데 이완용의 적극적인 태도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토의 협박에 다른 대신들이 주저하는 동안 이완용은 “오늘의 동아 형세를 볼 때 대사의 제안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다. 이에 대해 훗날 이토는 “내가 한

14 朝鮮總督府, 『朝鮮功勞者銘鑑』, 1935. 11. 3. (박치문, 위의 글, 26~27쪽에서 재인용)

15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의 죄목으로 든 다음의 8조목은 조선을 망해 가게 한 그의 행위를 잘 설명해 준다: 1)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인하여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일과 조선총독부를 우리나라에 설치케 한 일. 2) 헤이그 밀사로 인하여 황제 앞에 3차에 걸쳐 협박하여 양위케 한 일. 3) 을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과 또한 군대를 강제로 해산케 한 일. 4) 어린 황태자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고 또한 일본 여자와 정채적인 결혼을 시킨 일. 5) 고종을 일본에 건너가도록 획책한 일. 6) 황제를 강제로 서북지방을 순행케 한 일. 7) 사법권을 일제에 넘겨 애국지사를 처벌케 한 일. 8) 표면적으로는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합병케 하기 위하여 100만의 서명운동을 전개시켜 합병케 한 일. (김명수, 앞의 책, 191~223쪽; 박치문, 앞의 글, 30쪽에서 재인용)

16 이덕주,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에디터, 2001, 49쪽.

국 대신들에게 일한협약 문제를 제의했을 때 그들 가운데 감히 의견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학부대신이던 이완용이 나서서 ‘오늘의 동아 형세를 살펴볼 때 대사의 제안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협약이 여기에서 비롯되어 성취되기에 이르렀다” 라고 술회했다. 또한 이토는 “나는 비로소 일당이 탁견과 용기를 갖춘 비범하고 유용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 그를 추켜세웠다.¹⁷

또한 고종이 만나지는 하야시의 요청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물리치고 대신들과 사전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완용은 조약 체결 쪽으로 대세를 돌리는 역할을 한다. 이완용은 “문제의 결말이 눈앞에 닥쳤는데 우리 여덟 명의 신하가 아래에서 막아 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일본 대사가 굳이 폐하를 만나 볼 것을 청하는데 만약 폐하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라 일을 위하여 진실로 천만다행일 것이지만 만일 너그러운 도량으로 할 수 없이 허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이에 황제나 대신 모두가 침묵하자 다시 “신이 미리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만일 할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조약의 조문 가운데에도 더하거나 덜거나 고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 이 점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문구 수정에 대해 의견이 오가고 회의가 끝날 무렵 8명의 대신들은 “이상 말씀드린 것은 미리 대책을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 대사를 만나서는 다만 안 된다는 말 한 마디로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다시 다짐을 한다.

이 과정을 볼 때 회의에서 조약을 체결하지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대세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한 이 분위기에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반대하자고 했다면 나머지 대신들과 고종도 그를 따라갔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17 윤덕한, 앞의 책, 220쪽.

이완용은 회의 주제를 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닌가에서 조약의 문구 수정으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방법을 써서 조약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는 술수를 발휘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약이 성사되는 과정인 이토와 대신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자. 이토는 대신들에게 회의 내용을 묻고 싶다며 한규설에게 무엇이라고 제의했는가 하고 질문하자 한규설은 “나는 반대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답한다. 다음 박제순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박제순은 “내가 지금 외부대신으로서 외교권이 넘어가는데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명령이라면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한다. 이에 이토는 “이미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폐하의 지시가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명령이 아니겠는가. 외부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한다. 다음으로 민영기는 “나는 반대한다”고 답한다. 이토가 절대 반대인가 하고 묻자 그렇다고 재차 답한다. 이어 이하영은 “지금의 세계 정세와 동양의 형편 그리고 대사가 이번에 온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루어진 의정서와 협정서가 있는데 이제 또 외교권을 넘기라고 하는가. 나라의 근본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니 승낙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에 이토는 “그러나 이미 정세와 형편을 안다고 하니 이 역시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결론짓는다. 이어 이완용은 어전회의에서 자신이 한 말을 설명한 다음 “이번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종전의 우리 외교가 변화가 심했던 탓으로 일본은 두 차례나 대전쟁을 치러 많은 희생을 치르고 한국이 독립을 보전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 외교 때문에 더 이상 동양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없어 이번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일본도 결심한 바 있어 반드시 목적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대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고 우리 요구도 제기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자구 등은 다소 수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한다. 이에 이토는 “과연 당

신은 완전 동의라고 인정하겠소”라고 한다. 이어 권중현, 이근택, 이지용이 차례로 “어전회의에서 대체로 이완용과 같은 뜻이었다”라고 답변한다. 이토는 이들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다. 이어 조약 문안을 수정하는 회의가 진행된다.

위와 같은 이토와의 최종 회의 과정을 보면 보호조약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한 사람은 3명(한규설, 민영기, 이하영), 부정확한 반대자는 1명(박제순), 부정확한 찬성자가 3명(권중현, 이근택, 이지용)이었고, 정확한 찬성자는 이완용 밖에 없었다. 그나마 부정확하게 찬성한 이들도 이완용이 확실하게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마무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은 일본군의 포위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종을 비롯하여 일부 대신들은 반대했으나 이완용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고종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 을사보호조약이 무효임을 호소했다. 이 사실을 이토가 보고받고 고종을 양위시키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자, 이완용은 양위가 아니라 ‘황태자로 하여금 황제의 역할을 대행케 한다’는 말로 대체하자고 함으로써 결국 고종을 양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¹⁸ 또한 이완용은 일제의 조선 지배 기간 중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일본을 도왔다. 예를 들면 막명 높은 일본 헌병의 조선인 보조원 제도¹⁹ 그리고 나중에 항일 운동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킨 실력양성론 역시 그에게서 나온 것이었다.²⁰

네 번째로, 이완용이 생각보다 친일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있다. 그가 초기에 일본에 자주 가지 않았다는 것, 일본어를 잘 쓰지 않았다는 것, 일본 옷

18 윤덕한, 앞의 책, 253쪽.

19 윤덕한, 앞의 책, 253쪽.

20 윤덕한, 앞의 책 참조. “병합 후의 統治施政에 있어서도 齊藤 총독의 말씀에 나는 조선총독의 임무를 맡은 9년 동안에 그간 제반 시정에 있어서 侯의 협력에 의존한 바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朝鮮總督府, 『朝鮮功勞者銘鑑』, 1935. 11. 3; 박치문, 앞의 글, 26~27쪽에서 재인용)

도 입지 않았고 또 최소한 일본에 비굴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최소한 무엇무엇은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무엇을 한 것”의 의미를 축소하는 논리이다. 이는 A는 아버지를 죽였으나 최소한 아버지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A를 변호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것이 갖는 문제는 사람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무엇인가는 안 한다는 것이다. 즉 무위는 본질적으로 무한적이다. 행위는 한계가 있으나 무위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이완용이 조선을 일제에 넘겼는데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되물을 일이다.

다섯 번째, 그의 성격, 개인적인 취향 등으로 그를 옹호하는 논리가 있다. 그는 신중하고 조용했으며²¹ 붓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고 술이나 여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성격에 대해서는 나쁜 평도 많다. 예를 들면 윤치호는 다음과 같이 그를 평한다.

나는 이완용을 대단히 싫어한다. 그의 특권의식, 야비한 교활성과 음흉성, 그와 같거나 열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일 만큼 복종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그는 바로 사대부나 귀족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세우고자 한 사람이었다.²²

어느 날 밤 허친슨이 이완용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그가 매우 둔 문제에 있어 치사하다고 말할 수 있소. 내가 그의 이들을 여러 달 동안 잘 대해 주었는데

21 침착하고 의지가 굳으며 심사숙고하여 일단 결심한 일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실행력이 있었다. 권중현, 「보호조약조인평경」, 《독립신문》, 1897.11.11. (김행선 「친미·친로파로서의 이완용 연구(1858-1904)」,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5쪽에서 재인용)

22 윤치호, 앞의 책, 1896. 1. 21.

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었소. 지난해 나는 그에게 새해선물로 삼십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주었는데 글썽 그는 겨우 호두 백 개를 답례로 줍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관대한 마음씨를 잊지 않으려고 그대로 두고 있지요.”²³

위의 글들을 윤치호의 개인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쳐도 그의 생질이며 비서인 김명수가 “이완용이 만약 재물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는 동양 제일의 정치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도 있었다”²⁴라는 글을 쓴 것은 이완용의 개인 됴됨이를 짐작케 하는 말이다. 실제로 그는 많은 공금을 횡령하고 광산 등의 이권을 넘기면서 많은 재산을 챙겼고 일본으로부터도 많은 돈을 받아 일제 시대 당시 조선에서는 두 번째로 부자였다.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주장되나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고 지방 재직 시절 기생들과 더불어 지냈다고 신문에까지 날 정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좋지 못한 사생활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그의 개인적 삶과 성격을 가지고 그의 정치적 행위와 연관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인격이 설사 정말 고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친일 행위를 전혀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 개인의 덕과 정치가의 덕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협력자 이완용

그렇다면 이완용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한일합병을 추진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것일까. 여기에서는 이완용을 친일파가 아닌 제국주의 협력자로 보고자 한다. 우선 친일 개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일’은 일본과 가깝다는 뜻으로 사실상 긴밀한 외교관계가

23 윤치호, 앞의 책, 1897. 11. 11.

24 김명수, 앞의 책, 9쪽 참조.(김행선, 앞의 글, 7쪽에서 재인용)

중시되는 현대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친일이 왜 나쁘냐고 반문할 때는, 이런 중립적 의미로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언어란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요, 농축된 결과물로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 친일은 이미 단순히 일본과 가깝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반공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 이상인 것과 같다. 반공은 많은 민주인사들을 구속, 고문, 처형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 '일본과 가깝다'는 뜻을 전달하려면 다른 언어를 찾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친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친일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일이 중립적인 언어가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일본과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청산이 되어야 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을 중립적인 언어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구분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합병 야욕을 드러내기 이전의 친일과 그 이후의 친일을 나눌 수 있다. 그시기의 기준은 대체로 러일 전쟁인데 그 이전의 친일은 '친근대화'로서의 친일이며 그 이후는 '친제국주의'로서의 친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조선 지식인들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일본은 동양에서 앞서 가는 나라로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했으며 조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일본을 배우고 따르자는 친일은 '친근대화'로서의 친일이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적 야욕을 보이고 조선을 합병하려 했을 때조차 일본을 가깝게 생각했다면 이는 친제국주의로서의 친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친근대화로서의 친일적 입장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이후 제국주의 일본에게도 여전히 협력했다. 그러나 반면 적지 않은 인사들이 일본의 야욕을 직시한 후 반일 인사로 돌아섰다.

이완용의 경우는 어땠을까. 이완용은 철저한 친제국주의로서의 친일인사

였다. 즉 이완용은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이루어서가 아니라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드러나자 그편에 붙은 것이다. 그는 러일전쟁 이전에는 오히려 철저한 배일파였다. 그는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세가 어디냐에 따라 친청·친미·친러파의 길을 택했다. 갑신정변 때만 해도 친청·수구파로서 개화파에 적대했고 미국과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는 정동파의 대표로서 일본 배격에 앞장섰으며 러시아 편에 서서 아관파천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가 친미파였을 때에도 많은 뇌물을 받고 철도부설권을 미국에게 넘겨 주는 등 친미파로서의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 1905년 그가 다시 관직에 올랐을 때 러시아 세력은 그 기반을 상실하였고 일본이 우세한 위치를 점해 가고 있었다. 더구나 미국 역시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친일의 길을 갔다. 아마도 그동안 반일인사였던 그는 일본 세력에 자신의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일본의 눈에 들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완용은 친근대화로서의 친일이 아닌 철저한 친제국주의자로서의 친일파였다. 친일파이기 이전에 그는 이미 친청·친미·친러파로서 반민족 행위를 했으며 항상 강자 편에 서는 철저한 제국주의 협력자였다.

친일은 그 비판의 잣대에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친제국주의적 행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강자의 눈에 들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은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반민족 행위이면서 동시에 반인륜적 범죄이다. 사실상 ‘친일’ 그 자체는 우리 역사가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전부터 일본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던 박영효, 김옥균 등은 전형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 협력자인 이완용과는 다소 구별되어야 한다.²⁵ 이완용의 경우

25 그러나 박영효 역시 합병 이후에도 일제에 협력하였다.

어느 나라든 간에 강자일 경우 그 나라에 편승하여 살아남자는 논리를 가졌다. 따라서 이완용이 친미, 친러, 친일로 변신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맞기는 하나, 늘 최강대국에 협조한다는 면에서는 일관된 사람이었다.

보수주의자 이완용

이완용의 친일 논리 즉 제국주의 협력 논리는 무엇인가. 그의 논리는 ‘동양평화론’, ‘진화론적 국제정치관’, ‘문명론’ 등으로 분석된 바 있다.²⁶ 그러한 논리들이 갖는 공통점에 주목을 하고, 다른 적극적 협력자였던 송병준, 이용구의 논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고민하였을 때 이완용의 제국주의 협력 논리는 보수주의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서구에서도 보수주의는 제국주의 옹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독일의 경우 나치 협력에 대한 옹호는 보수주의 논객으로부터 비롯되었다.²⁷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친일에 대한 재평가는 주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보수주의의 원조로 알려져 있는 김종필은 한일 협정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라에게 “오늘 우리가 만난 이상 당신은 일본의 고무라 주타로(러일 전쟁 당시 일본의 의무대신)가 되라. 나는 이완용이 되겠다”라고 하였다고 한다.²⁸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한말 당시 보수주의자라 함은 유교 신봉, 왕권 강화, 반서구 사상을 가진 위정척사파라고 생각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완용 역시 유교와 불교를 신봉했고 고종에게 충성했으며 제사를 빼놓지 않고 지내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효에 힘쓴 사람이었다. 선조는 노론 계열로, 그는 6세 때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마치고 7세 때 효경, 8세 때 소학

26 박치문, 앞의 글 참조.

27 구승희, 앞의 책, 25~45쪽.

28 조현연, 「김종필 : 그는 정통 보수주의의 원조인가」, 『보수주의자들』, 삼인, 1997, 54쪽.

을 마쳤다고 한다. 영특한 재능 덕에 명문가인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²⁹ 양부는 처가가 민비와 친척지간이었고 대원군과는 친구지간이었으며 이완용의 서형인 이윤용은 대원군의 사위가 된 사람이다. 25세 때 임오군란 평정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된 증광별시에서 병과에 합격, 이후 계속적으로 요직에 등용되었다. 이러한 그가 초기에 수구파의 입장이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갑신정변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민중식, 이준용 등과 함께 갑신정변의 잔당인 신기선을 국문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수차례 올렸다. 이 당시 그는 개화파를 정적으로 삼았다.³⁰ 그는 일본과의 합병을 추진할 때에도 황실 안전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황실에 충성했다. 물론 일본 천황에게도 충성을 바쳤다. 이를 볼 때 위정척사, 수구라고 하는 사실이 반일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수구적 인간이 실리주의적일 때 훨씬 더 친제국주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를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할 경우 다른 적극적 친일파인 송병준, 이윤구 등과의 차이가 부각된다. 송병준은 일진회를 조직하고 조선을 합병하라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친일파였으나 이들은 반체제주의자이고 급진주의자라는 면에서 이완용과 차이가 난다. 송병준과 이완용은 한때 연립내각을 구성하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일진회와 이완용은 갈등관계에 있었다. 일진회 평의원 유재한은 이완용이 정치 개선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친

29 그는 이 당시 당대의 대가들을 모시고 유교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정익선 선생 하에서 『대학』, 『논어』 등을 학습하였고 당대의 명필 이용희 선생 하에서 서법을 익혔다. (김명수, 앞의 책, 476~487쪽; 박영석, 「이완용 연구—친미·친러·친일파로서의 행위를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 3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2, 231~232쪽에서 재인용) 이완용은 당대의 명필가였으며 만년에는 『천자문』 1권을 출판하였다. 학문에 있어 대가란 평을 들었으며 역사에도 관심이 있어서 『조선사』 편찬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명수, 앞의 책, 39~40쪽; 김행선, 앞의 글, 9쪽에서 재인용)

30 임대식, 「이완용의 변신과정과 재산축적」, 《역사비평》 가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3, 144~145쪽.

인척을 관직에 등용시켜 '가족정부' 형성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완용의 사직을 건의하였다.³¹ 이완용을 양반관료 중심의 정치체제를 지향한 양반파라고 한다면 일진회는 양반질서 해체를 지향한 평민파라고 할 수 있다. 이완용은 양반 출신으로 관료적 정치가이며 점진주의를 지향하고 시세순응주의적이며 안전지향적이나 송병준은 천민 출신으로 대중집단적 정치가이고 급진주의적이며 극단적 친일주의를 주장했고 모험적이라 할 수 있다.³²

1. 실리주의

실리주의는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는 인간 이성과 유토피아니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며 점진적 개혁의 길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실리주의이다.³³ 보수주의자들은 재산을 사랑으로 여기며 재산으로부터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비판을 당할 때는 재산을 옹호해 주는 보수주의의 논의에 도움을 구하게 된다. 보수적이라는 말에 종종 주어지는 악명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³⁴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적 논객들이 실리주의를 내세우며 일본을 호의적으로 바라본다.³⁵

이완용의 제국주의 협력 논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리주의이다. 또한 그의 실리주의는 그가 보수적이면서도 위정척사파와

31 《대한매일신보》, 1907. 9. 19.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국학자료원, 2002, 68쪽에서 재인용)

32 한명근, 위의 책, 70쪽.

33 이나미, 「한국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과 의미」, 《평화연구》 제11권 1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2003, 56쪽.

34 Viereck, Peter, 김태수 역,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태창문화사, 1981, 19쪽.

35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에 의하면 일본의 무사 정신은 실용적인 정신이다. 전영기, 「조갑제: 일본의 개혁적 무사정신을 동경하는 복고주의자」, 『보수주의자들』, 삼인, 1997, 166쪽.

갈리게 되는 지점이며, 친일과 반일을 가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완용은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제사 지내는 데 열심이었으나 그것은 관행과 습관에 따른 것일 뿐 뚜렷한 원칙을 신봉해서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그에게 일관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때에 따라 변신하여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스로가 자신을 평하면서 친미, 친러, 친일로 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20세 때에 한학을 숭상하고 산림학에 종사했으나 갑오경장이 운외의運意外로 도道를 존尊하고 유儒를 숭상하는 것은 시대에 뒤지고 외국과의 교통이 확장됨에 따라 서양과의 교제가 매우 팽창했기 때문에 지난날의 구업을 교수膠守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양 학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하루 아침에 도복을 벗고 머리를 깎고 구주歐洲에 건넜다. 그것은 시時에 연緣하고 의宜를 제制하는 인사人事이며 또한 나의 경험한 바이다.

최초 25세 무렵에는 종래 조선인이 목적으로 하는 문과에 합격했다. 당시 미국과의 교제가 점차 긴요한 까닭에 그때 신설된 육영공원에 입학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갑오경장 후 일미년에 이르러서는 아관파천 사건으로 인해 노당露黨의 호칭을 얻었고, 그후 일로 전쟁이 끝날 때에 이에 전환하여 일파日派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는 때에 따라 적당합宜을 따르는制 것일 뿐 다른 길이 없다. 무릇 천도天道에 춘하추동이 있으니 이를 변역變易이라 한다. 인사人事에 동서남북이 있으니 이것 역시 변역이라 한다. 천도 인사가 때에 따라 변역하지 않으면 이는 실리를 잃고 끝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³⁶

반면 위정척사파이며 의병장이었던 유인석의 경우를 보자. 그는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여야 한

36 김명수, 앞의 책, 802~804쪽. (박치문, 앞의 글, 5쪽에서 재인용)

다는 『조선책략』의 내용³⁷에 반대하여 신사척사운동을 벌였다.³⁸ 또한 1908년 이범윤과 함께 제정한 의병규칙을 보면 “이 의거야말로 천추만대의 큰 의미이며 천하의 큰 업적이다.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죽음은 있는 것이니 죽어서 절의를 세운다면 이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이 삶이 얼마나 보람 있겠는가. 그런즉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큰 의리를 밝히며 큰 업적을 완수하자”고 하여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리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나라가 이국(오랑캐국)이 되어 존속하느니 화국이 되어 멸망하는 것이 낫다. 금수가 되어 살아가느니 인간인 상태로 죽는 것이 낫다”³⁹는 것이다.

즉 이완용에게 있어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유인석의 경우는 짐승처럼 사는 것보다 의를 지키며 인간답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위정척사파의 경우 이를 보수주의라고 보는 것보다는 유교근본주의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안전함을 중히 여기지만 근본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을 불사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 실리를 택했다 함이 얼마든지 수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완용의 경우는 “잘살기 위해서” 실리주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완용은 활동 전초기간에 걸쳐 금전과 밀착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옥새를 위조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조차 있었다.⁴⁰ 이관파천 이후 학부 공금 4천 달러를 횡령하여 영수증까지 위조한 바 있었고 그 때문에 그는 학부협찬 윤치호를 위협하는가 하면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학부대신이 되

37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 삼영사, 1982, 212쪽.

38 의암학회, 『의병항쟁과 국권회복운동』, 경인문화사, 2003, 5~6쪽. 한편 황준현의 『조선책략』은 김홍집이 1880년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39 「答閔士人龍鎬書」.(유인석, 국사편찬위원회 편, 『소의신편』, 1975에서 재인용)

40 《대한매일신보》, 1910. 5. 26.

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⁴¹ 그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이완용 가문은 중요한 관직을 독점하였고 사람들은 이를 “가족정부”라 풍자하기도 하였다.⁴² 그는 을사보호조약 체결의 큰 공로로 인해 총리직에 올랐고, 그후 수차에 걸쳐 내각변경설이 있었지만 그는 끝내 총리직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일본인 관료들에게 뇌물공세를 하고 반대파 회원에 대해 금전으로 유혹하기도 했던 것이다.⁴³

실리주의, 실용주의는 오늘날 힘을 얻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이념이기도 하다. 실용주의는 일제가 조선인들이 합병에 협력하도록,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도록 하고 유순한 백성을 만들려는 이데올로기이며 오늘날에도 국민을 우민화하려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주의는 미군정과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정권에도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실용주의 답론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2. 경쟁과 세계화

경쟁의 논리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된다.⁴⁴ 보수주의자들은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념을 옹호하면서 대기업가의 창의력과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다.⁴⁵ 또한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불평등은 인간이 자유롭도록 허용하는 자연적인 결과라고 본다.⁴⁶ 다음은 이완용이 경성학당 운동회에서 학생들에게 한 연설을 기사

41 윤치호, 앞의 책, 1896, 2. 12, 2. 25, 2. 28.

42 황현, 국사편찬위원회 편,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43 《대한매일신보》, 1907. 11. 24, 11. 30, 12. 11. (김행선, 앞의 책, 4~8쪽 재인용)

44 기든스는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수주의를 들고 있다. Giddens, Anthony, 한상진·박찬욱 공역,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43쪽.

45 Harbour, William R., 정연식 역, 『보수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 경북대학교출판부, 1994, 161쪽.

화 한 것인데 이는 경쟁과 관련하여 시사를 주는 언급이다.

학도들을 권면하여 가라대 세상에 사람이 살려면 승벽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남보다 나가는 때가 있는지라. 오늘 달음박질 내기하는 것의 경계가 세계에서 사는 경계와 같은지라. 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달음질을 하여 기어이 붉은 기 먼저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남에게 지지 아니 하려는 것을 보이는 것이요. 이 승벽을 가지고 백사를 행하면 언제든지 이기는 때가 있으리라 하며(…)47

세계사에 두 본보기가 있으니 조선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뽑아 미국같이 독립이 되어 세계에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든지 폴란드같이 망하든지 좌우간에 사람하기에 있는지라. 조선사람들은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48

위와 같은 언급을 보면 실로 이완용은 윤덕한의 말대로 “세계화 논리의 증조할아버지”뻔 되는 사람이다.49 앞서 실리주의 부분에서 이완용은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이 역시 경쟁적 질서를 표방하는 세계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화 논리가 바로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동양평화론

보수주의는 인간한계의 인식과 더불어 세상과 우주를 하나의 질서잡힌 틀로 본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과 세계의 대세에

46 김용민, 「서구 보수주의의 기원과 발전」,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29쪽; Vierendeck, 앞의 책, 19쪽.

47 《독립신문》, 1897. 4. 15.

48 《독립신문》, 1896. 11. 23.

49 윤덕한, 앞의 책, 56쪽.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과 경쟁적 세계관이 결합되어 탄생한 것이 '동양평화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완용에 의하면 조선이 일본과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적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계적인 대세로 그렇게 해야만 동양이 서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 동양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조선과 일본이 상고이래 동종동족, 동종동근인 것은 역사에 있어서의 사실史實인 바 일한 병합은 당시에 있어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적인 대세와도 순리하고, 동양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조선민족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답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 조선은 국제경쟁이 과격한 때에 있어서도 일본과 함께 일국을 완전히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제군이 아는 바이다. 오늘과 같은 전 세계가 개조하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들은 일만여천방리에 지나지 않는 강토와 모든 정도가 부족한 천여백만의 인구를 갖고서 독립을 고창高唱한다는 것은 실로 허망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제군이 세계의 대세를 통해通解하지 않고 오직 감정적으로 일시에 틈발鬪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군들이여 그것은 우리들이 기피할 수 없는 사실인 바 따라서 나는 생각건대 그 경고문 중 무슨 이유로 생생중에 사死를 구하느냐고 말하고 싶다. 동양평화의 대상을 해결하지 않은 채 어부지리를 획득코자 하는 무리들을 계고戒告하는 바이다. 내지와 조선과의 사이에는 하늘 뜻에 기인하는 공동 존립과 공동 이해가 있어 단연코 위 두 가지의 분립을 허용할 수 없는 바이며, 우리 조선인들이 일한 병합의 의의와 그 정신이 유효하게 실현되는 방안을 향해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장래의 행복을 도계圖計하는 최선의 양책良策임을 마음속 깊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⁵⁰

50 김명수, 앞의 책, 284~287쪽. (박치문, 앞의 글, 41쪽에서 재인용)

위의 글은 3·1운동에 대한 이완용의 3차 경고문으로, 민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 오히려 총독부 측에서 신문에 내지 못하게 말릴 정도였다.⁵¹

동양평화론은 그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구조적 폭력론'이라 할 수 있다. 박탈당한 자들이 다른 수단이 없어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과 달리 구조적 폭력은 기득권자들에 의해 제도, 교육, 이데올로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된다. 안중근이 이토를 권총으로, 이재명이 이완용을 칼로 공격한 것과 이토와 이완용이 제도나 절차를 통해, 동양평화론이란 이데올로기를 통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고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몰아낸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인권과 세계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 수호를 정당화하며 약소국을 침략·지배한다. 반면 약소국은 테러밖에는 의존할 수단이 없다. 이완용은 이러한 폭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한 장본인이다. 나치 전범 재판의 난점 중 하나는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아이히만과 같은 범죄자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죽인 증거가 없고 또 특정인을 죽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데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럴 때 그에게 '책임성'이라는 개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지위가 높을수록 직접 실행하는 것에서 거리가 멀어지듯이, 직접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책임성은 커진다는 아렌트의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나가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2차대전 후 제3세계 국가들이 탈식민화하면서

51 1차 경고문은 《대한매일신보》 4월 5일자 1면 1단에 실렸다. 2차 경고문은 1차 경고문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자 총독부에 의해 4월 9일자 사회면 5단에 실리게 되며 3차 경고문은 5월 30일자로 게재되었다.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일제에 대한 식민지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최근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서구 지성인들이 독일 제국주의, 나치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이런 특수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일제 잔재 청산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온 일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좀 더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학계의 경우를 보면 특히 일제 협력논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친일파 즉 일제 협력에 대한 연구는 1965년 한일회담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미군정과 제1공화국의 사회적 기반이 바로 일제 협력세력이었으므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가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친일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일제 협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친일파'라는 반민족 행위자들의 개별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은폐되었던 사실을 '폭로'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 즉 학문적·체계적·논리적 수준이 아닌 선언적 수준에 그쳤으며 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민족정기를 세운다는 목표로 이완용과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자로 비판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이완용은 반민족 행위자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자이기도 하다. 프랑스 나치 협력자 재판에서도 나타나듯이 프랑스의 국익을 해치는 것보다 인종주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었다. 이완용은 우선 엄연히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에 협력하였다. 둘째, 조선 백성을 불법적으로 일본의 노예로 넘겼다. 일본이 조선인은 자국민과 동등한 지위에 두려고 하지 않은 것,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그도 명백히 알고 있었다.⁵² 셋째, 그는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 즉 조선민족 말살에 협력했다. 이는 정신적 인종 청소이며 정신적인 대량 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민족에게 국가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집시와 나라 없는 시절의 유대인들을 보자. 어느 국가, 어느 국민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의 대상이 되고 나치에 의해 대량 학살되었던 것도 그들을 보호할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패행위를 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고 뇌물을 썼으며 일제에 협력했다. 부패는 프랑스의 파리 재판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용서할 수 없는 반윤리 범죄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민족 정기'라는 것이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애매모호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페탕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제일 중요한 범죄는 '프랑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국가의 위상을 전락시킨 죄를 들었다.⁵³ 민족 정기 또는 국가의 명예는 같은 운명을 겪음으로써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한 공동체의 자부심과 같을 것으로 그러한 추상적 가치는 경제적 실익만큼이나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을 반드시 국수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 처벌을 통해 구정치가 70%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협력자들은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오더라도 종신 부역죄라는 형을 받아 피선거권,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공직, 언론, 국영기업체 진출이 차

52 내선인의 용화 문제는 총독께서도 매일 노심초사하는 만큼 결코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내지인들은 모두 조선인들을 개돼지 보듯하여 조선에 오래 거주하면 그 나쁜 습속에 오염될 것을 걱정하는 현상이 있다. 조선인들이 문화수준이 낮아 멸시당하는 일을 모면할 수 없음을 원래부터 자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현상으로는 내선인 용화는 바라기 어렵다. (이완용, 「內鮮融和具申書」; 박치문, 앞의 글, 49쪽에서 재인용)

53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 중심, 1999, 142쪽.

단되어 상업밖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민권 박탈자가 된다. 숙청된 나치 협력자의 수는 총 1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767 명이 사형되었다. 협력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총인구의 3~5%가 국가와 사회에서 추방당했다.⁵⁴ 그에 반해 한국의 일제 협력자는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완용의 자손인 이윤형은 1992년에 이완용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했으며 이후 시가 30억 원대의 대지 712평을 비롯하여 전답 수천 평을 되찾았다.⁵⁵ 그는 남은 이완용의 땅도 모두 찾겠다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송병준의 자손이 인천, 부평 미군부대 터를 차지하겠다고 소송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일제 협력자에게 관대했는가를 보여 주는 실패라 하겠다. ■

참고 문헌

- 강만길, 『통일운동 시대의 역사인식』, 청사, 1990.
 강만길 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구승희, 『논쟁 나치즘의 역사화』, 은누리, 1993.
 김완섭, 『친일파를 위한 변명』, 춘추사, 2000.
 김용민, 「서구 보수주의의 기원과 발전」,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천석, 「이완용의 조국관」, 《한양》 6권 6호, 한양사, 1967.
 김행선, 「친미·친로파로서의 이완용 연구(1858-1904)」,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류영익, 『개화기의 대미인식』,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박영석, 「이완용연구-친미·친러·친일파로서의 행위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2.
 박은식·이장희 역, 『한국통사』, 박영사, 1980.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 삼영사, 1982.
 박지문, 「이완용의 대외인식 변화와 친일논리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논문, 1994.
 복거일,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들린아침, 2003.
 송규진, 『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송병기, 『쇄국기의 대미인식』, 『한국인의 대미인식-역사적으로 본 형성과정』, 민음사, 1994.

54 주섭일, 위의 책, 325~328쪽.

55 윤덕한, 앞의 책, 358쪽.

- 신복룡, 『한국사 새로 보기』, 풀빛, 2001.
- 유인석, 국사편찬위원회 편, 『소의신편』, 국사편찬위원회, 1975.
- 윤덕환, 『이완용 평전』, 중심, 1999.
- 윤치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75.
- 이나미, 『한국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과 의미』, 『평화연구』 제11권 1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2003.
- 이덕주,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에디터, 2001.
- 임대식, 「이완용의 변신과정과 재산축적」, 《역사비평》 가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3.
- 의암학회, 『의병항쟁과 국권회복운동』, 경인문화사, 2003.
- 전영기, 「조갑제: 일본의 개혁적 무사 정신을 동경하는 복고주의자」, 『보수주의자들』, 삼인, 1997.
- 정태현, 「일제하 경제사 인식의 정립을 위한 시론」, 《역사와 현실》 12호, 1994.
- 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1994.
- 조현연, 「김종필: 그는 정통 보수주의의 원조인가」, 『보수주의자들』, 삼인, 1997.
- 주섬일, 『프랑스의 대숙청』, 중심, 1999.
- 주진오, 『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5.
- 차석기, 『식민지 교육정책 비교연구』, 집문당, 1989.
- 최재희, 「인도군 육성과 조직을 통해 고찰한 영국의 식민정책」, 《아세아연구》 46권 2호, 2003.
-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한철호,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반성의 역사」, 《동아시아비평》 4호, 2000.
- 황준현 · 문일평 역, 『조선책략』, 건국대학교출판부, 1977.
- 황현, 국사편찬위원회 편,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 Giddens, Anthony, 한상진 · 박찬욱 공역,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 Harbour, William R., 정연식 역, 『보수주의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 경북대학교출판부, 1994.
- Viereck, Peter, 김태수 역,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태창문화사, 1981.

이나미 nami@korea.ac.kr | 고려대 박사. 현 고려대 강사. 저서로는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등이 있다.